

인침을 받은 십사만 사천 명(3)

- 읽을 말씀 계 14:1-5
- 주요 내용

지난 시간에는 인침을 받은 십사만 사천 명이 교회가 아니라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십사만 사천 명이 유대인 중 구체적으로 누구인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십사만 사천 명은 유대인 중 구체적으로 누구인가?

히브리서 1장 14절은 천사들이 구원받은 자들을 보호한다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기 전에는 방치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아직 구원받지 않은 택함받은 자들과 특히 사명이 있는 자들을 초자연적으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십사만 사천 명에게 행하실 일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유대인들처럼 7년대환난 직전에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이 맺을 언약에 열광하고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착각할 것입니다(요 5:43). 그러나 삼 년 반이 지나면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때 그들은 신실한 유대인이므로 절대 적그리스도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장렬히 순교해 14장에 기록되어 있듯이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러나 십사만 사천 명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죽으면 지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재앙으로 죽지 않도록 보호하는 인을 치신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독창적인 견해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십사만 사천에 대한 기록을 근거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무엇을 위한 인인가?

계시록 7장 4절에서 “인”은 구원받은 자들이 받는 성령의 인(엡 1:13)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는 순간 개별적으로 받지만, 십사만 사천은 일시에 모두 받았

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인이 아니며, 그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종들” 의 이마에 인치라고 한 것 때문에 이들이 유대인 전도자라고 해석하는데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도자에게 따로 치는 인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종들” 이라는 표현은 전도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은 자주 이스라엘을 나의 종이라고 불렀습니다(레 25:55, 사 41:8-9, 44:2, 45:4, 49:3, 렘 30:10).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 은 그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유대인 중에서 인 맞은 자들이므로 신실한 유대인을 의미함이 분명합니다. 또한, 14장에서 그들에 대한 설명을 보면 특별히 한 일은 없지만 그 대신 그들의 신실성에 대한 설명들이 두드러집니다. 더 결정적인 것은 이마에 인을 치는 것은 에스겔 9장에서 가져온 개념인데, 거기서 인은 다름 아닌 신실한 유대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겔 9:1-7). 그런데 계시록 7장에서도 이마에 인을 쳤고(1-4절), 에스겔서에서처럼 정확하게 보호를 위한 인입니다. 이것은 계시록 9장 4절 “...**오직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라는 말씀을 보면 더 이상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인은 구원의 인이나 하나님의 종들에게 치는 인이 아니라 신실한 유대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치는 보호를 위한 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들이 신실한 유대인들을 뜻한다고 생각합니다.

2) 왜 십사만 사천 명만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가?

궁극적인 구원을 받은 십사만 사천 명은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릅니다(계14:2-3). 문제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십사만 사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라는 단서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땅에서 속량받은 자 전체인 것 같고, 따라서 교회 전체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새 노래가 구원받은 자가 부르는 구원의 노래라는 선입견 때문에 생겨나는 착각입니다. 새 노래는 궁극적인 구원을 받은 자들이 부르는 가사가 같은 하나의 노래가 아닙니다. 구약성경에 의하면 땅에 있는 사람들도 새 노래를 불렀고(시 144:9, 149:1, 사 42:10), 구원뿐 아니라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계시록에 보면 십사만 사천이 부른 것과 다른 새 노래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속량받은 자가 부른 노래가 아니라 천사들인 24장로가 부른 노래로(계 5:8-10), 14장에 나오는 새 노래와 가사도 같지 않습

니다.

그러면 왜 이들 외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을까요? 그것은 이 노래가 십사만 사천 명에게 맞는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신실한 유대인들이지만 예수를 믿지 않던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지옥에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긍휼히 여기셔서 인을 치고, 재앙들로부터 보호해주셔서 예수를 믿을 수 있었고, 순교를 통해 지금 천국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에게 베푸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새 노래로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만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이지 그들이 속량받은 전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3) 왜 순결과 정직과 흠이 없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는가?

성경 어디에도 선행을 구속보다 앞세우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문맥을 자세히 살펴보면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십사만 사천"이라고 규정했으므로, 그들은 덕이나 선 때문이 아니라 속량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천국에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뒤에 그들의 덕이나 선에 특별한 강조점을 두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4-5) 라는 설명들을 덧붙였습니다. 보콥이나 이필찬 교수는 십사만 사천 명이 계시록 7장 9절 이하에 나오는 셀 수 없는 무리와 동일한 집단이며, 이것이 그들을 전체 교회로 해석하는 이유 중의 하나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4-5절을 계시록 7장 9-14절과 비교해보면 두 집단은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자는 순결, 정직, 흠이 없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후자는 계속해서 대속하신 은혜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7장에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구속받은 것을 강조했는데, 왜 14장에서는 순결, 정직, 흠이 없음을 그토록 강조한 것일까요? 그것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휴거될 자들의 복을 미리 보여주고 설명한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말 등 여러 죄에 빠졌다가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속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나 14장에 나오는 십사만 사천 명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신실한 유대교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표현과 설명들은 조금도 이상한 것이 아니며, 그 자체가 그들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끝으로, 저는 십사만 사천이 실제적인 수라고 생각합니다. 이 수는 국가 규모도 아니고, 도시 중에서도 소도시 인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수를 교회 전체라고 주장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물론 그들은 이 수가 상징이라고 주장하며 피해깁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제적인 수라는 것은 그들을 “처음 익은 열매”로 칭한 것을 통해서도 뒷받침됩니다. 처음 익은 열매는 본래 양이 많지 않고 적기 때문입니다.

2016년 팔레스타인 통계청에 따르면 순수 유대인 혈통이 637만 명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무렵에는 지금보다 그 수가 많아질 것이지만, 그렇더라도 인 맞을 수는 십사만 사천 명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교인이 얼마나 적은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기독교에도 적용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신 후, 교회 안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 7:21-23). 사도 바울도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기 전에 배도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살후 2:3). 우리는 이것을 이미 유럽과 미국 그리고 한국교회 안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교회 안에도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다.

우리는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비교하며 안일하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성경 말씀을 거울로 삼아 자신을 살피며,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 들이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께 순종하고, 거룩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들만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 나눔과 적용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유대인이 소수인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천국에 갈 자들이 적습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자인지 돌아보고, 순종과 거룩을 추구하며 이 땅에서도 맛보는 천국의 기쁨들을 나누어 봅시다.